

## 특성불안과 시간거리 지각이 대안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해석수준이론에 근거하여\*

김 경 옥<sup>†</sup>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한양상담센터

본 연구는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에 근거하여 시간거리지각의 개인차가 대안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특성불안과 해석수준과의 관계 및 특성불안이 대안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거리 지각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피험자에게 '다음 학기'라는 동일한 시간거리를 제시해주고 이를 가깝게 지각하는 집단과 멀리 지각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상위수준이 긍정적이지만 하위수준이 부정적인 대안(이하 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과 상위수준이 부정적이지만 하위수준이 긍정적인 대안(이하 상위부정-하위긍정인 대안)에 대한 선호도와 상하위수준의 중요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연구결과, 시간거리를 가깝게 지각할 때는 상위수준보다 하위수준의 정보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반면, 시간거리를 멀리 지각할 때는 하위수준보다 상위수준의 정보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거리를 가깝게 지각할 때는 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보다 상위부정-하위긍정인 대안의 선택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성불안과 해석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특성불안이 높을수록 하위수준의 해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시간거리를 가깝게 지각할수록 하위수준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긍정적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더 낮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에 대하여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시간거리 지각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논의하고,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해석수준이론, 시간거리지각, 특성불안, 대안의 선호도

\* 본 연구는 김경옥(2009)의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sup>†</sup> 교신저자: 김경옥,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한양상담센터, (426-79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 3동 1271  
Tel: 016-704-6835, E-mail: kaykim25@hanyang.ac.kr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중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사결정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결정이 임박했을 때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실제 의사결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은 원리나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수학선생님을 선호하겠지만, 수능시험일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원리나 개념을 알려주는 선생님보다 시험문제를 푸는 요령이나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더 선호할 것이다. 즉 동일한 특성을 지닌 선생님이라도 시간적 거리에 따라 그 선호도가 달라지며, 실제 의사결정에도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간적 거리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Trope와 Liberman (2003)은 해석수준 이론(construal level theory)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시간적 거리 미래 사건에 대해 정신적으로 표상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선호도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다. 즉 먼 미래 사건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고 핵심적인 측면 즉, 상위수준(high-level construal)에서 표상하는 반면,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구체적이고 부차적인 측면 즉, 하위수준(low-level construal)에서 표상하므로 미래사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시간적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Liberman & Trope, 1998; Trope & Liberman, 200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rope와 Liberman(2000)은 대안의 상위수준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측면과 하위수준에 해당하는 부차적인 측면을 조합하여 시간거리에 따른 선호도를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개최시간이 자신의 일정과 맞지 않는 학회의 참석여부를 결정할 때, 주제는 전반적인 목적개념인 상위수준의 가치를 지니지만, 개최시간은 수단적이고 세부적인 하위수준의 가치를 지닌다. 이 때 가까운 미래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상위수준의 가치는 감소하고 개최시간과 관련된 하위수준의 부정적인 속성이 더 증가하게 되므로 학회참석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지만, 시간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위수준의 긍정적 가치는 증가하고 하위수준의 부정적 가치는 감소하므로 학회참석여부를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가까운 미래일 때는 상위수준이 매력적인 대안보다 하위수준이 매력적인 대안의 선호도가 높아지며, 먼 미래일 때는 하위수준이 매력적인 대안보다 상위수준이 매력적인 대안의 선호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Liberman & Trope, 1998).

이들은 후속연구에서 시간적 거리뿐 아니라 공간적, 사회적, 가상적 거리를 모두 포함하여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라는 개념으로 이 이론을 확장하고 있다. 심리적 거리가 멀다는 것은 현재보다는 과거나 미래에 속하는 일이며, 가까운 장소보다 공간적으로 먼 장소에서 발생되거나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는 일 또는 발생가능성이 낮은 사건 등을 의미한다(Wakslak, Trope, Liberman, & Alony, 2006). 따라서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가상적 거리가 크면 클수록 상위수준의 해석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다(Fujita, Henderson, Eng, Trope, & Liberman, 2006; Henderson, Fujita, Trope, & Liberman, 2006; Wakslak et al., 2006).

해석수준이론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는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 예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먼 미래 사건에 대한 평가는 상위수준에 근거하여 나타나며, 가까운 미래 사건에 대한 평가는 하위수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Liberman & Trope, 1998; Sagristano, Trope, & Liberman, 2002; Todorov, Goren, & Trope, 2007; Trope & Liberman, 2000). Nussbaum, Trope과 Liberman(2003)은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간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위수준, 그 사건에서 탈맥락화된 해석(decontextualized construal)을 기초로 예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혔으며, Eyal, Sagristano, Trope, Liberman과 Chaiken(2009)은 먼 미래조건일 때, 가치와 행동의도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다양한 활동에 대한 피험자의 일반적인 태도를 측정 한 후, 가깝거나 먼 미래에 이 활동을 수행할 의도가 있는지 평정하도록 한 결과, 피험자의 일반적인 태도는 가까운 미래조건보다 먼 미래조건에서 행동의도와 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구조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의 상위수준 표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부적이고 부수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하위수준 표상이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 심리적 거리가 평가, 예측 및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상기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심리적 거리를 객관적인 조건으로 조작하고 있다. 즉 시간적 거리를 예로 들면, 실험시간이나 실험직후와 같은 시간은 가까운 미래로, 6개월이나 1년 후를 먼 미래 조건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시간거리를 지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즉 동일하게 먼 미래로 제

시되어온 6개월이나 1년 후의 시간이 개인에 따라 가깝게 지각될 수도 또는 멀리 지각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객관적인 시간거리로 측정하였을 때 간과될 수 있는 주관적인 시간거리 지각이 지금까지 해석수준 이론에서 밝혀온 객관적인 시간거리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학기’라는 동일한 시점에 대해 피험자들이 시간거리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측정하고, 이러한 시간거리 지각에 따라 대안의 선호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인 대학생이 공감하기 쉬운 수강신청 상황을 설정하여 상위수준(수업의 내용)과 하위수준(성적평가)의 긍정/부정 속성을 교차시켜 두 가지 대안을 만들었다. 즉 주관적인 시간거리 지각에 따라 상위수준이 긍정적이지만 하위수준이 부정적인 대안(흥미롭지만 성적평가가 까다로운 수업; 이하 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과 상위수준이 부정적이지만 하위수준이 긍정적인 대안(재미없지만 성적을 잘 주는 수업; 이하 상위부정-하위긍정인 대안)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안의 선호도는 상하위수준의 중요도 평가 및 대안 선택의 도로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거리가 가깝게 지각되면 상위수준보다 하위수준의 정보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지만, 시간거리가 멀리 지각되면 하위수준보다 상위수준의 정보가 더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다. 둘째, 시간거리가 가깝게 지각되면 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보다 상위부정-하위긍정인 대안의 선택의도가 높아지지만, 시간거리가 멀리 지각되면 상위부정-하위긍정인 대안보다 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의 선택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 특성불안을 상정하고, 이를 해석수준 이론에 접목시켜 특성불안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성불안을 포함하는 부정정서와 이와 대립되는 긍정정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때때로 정보처리과정에서의 혼란이나 판단에서의 오류를 야기하기도 한다(Gasper & Clore, 2002). 시각지각(visual perception) 영역에서 정서가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일련의 연구들은 초점수준 가설(level of focus hypothesis)을 통해 긍정정서는 인지적 정보처리 과정에서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수준, 즉 자극의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지만, 슬픈 정서는 보다 지엽적인 수준 즉 자극의 세부사항이나 구성요소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Basso, Schefft, Ris, & Dember, 1996; Clore & Gasper, 2001; Clore, Gasper, & Garvin, 2001; Clore, Wyer, Dienes, Gasper, Gohm, & Isbell, 2001). 또한 Derryberry와 Tucker(1994)는 특성불안이 지엽적인 정보처리로의 전환을 야기하는 반면 행복감은 전반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고 밝혔으며, Derryberry와 Reed(1998) 역시 특성불안이 높은 피험자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지엽적인 정보처리를 더 빠르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수준 이론에 접목하여 볼 때 특성불안과 같은 부정정서는 하위수준의 해석을 촉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측은 행동개념화 이론(action identification theory)을 통해서도 지지될 수 있는데, 이 이론에서는 각각의 행동이 방법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구체적이고 하위수준에서부터 행위의 목적이나 효과를 의미하는 추상적인

상위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지적인 위계로 기술될 수 있다고 본다(Vallacher & Wegner, 1985, 1987, 1989). 예를 들어,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행위는 ‘종이, 유리, 캔으로 분리하기’라는 구체적인 지엽적인 하위수준에서의 행위로 기술될 수도 있지만, ‘환경을 보호하기’라는 보다 전반적이고 폭넓은 상위수준에서의 행위로 기술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행동개념화 이론은 개인이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추상적인 상위수준의 기술을 하거나 구체적인 하위수준의 기술을 한다고 보는 점에서 해석수준 이론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Kim & John, 2008). 이러한 개념적 유사성으로 인해 Liberman과 Trope(1998)는 시간적 거리에 따른 해석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Vallacher와 Wegner(1987)가 개발한 행동개념화 척도(Behavior Identification Form)를 사용하였고, Fujita, Trope, Liberman과 Levin-Sagi(2006) 역시 해석수준 조작을 검증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Gasper와 Clore(2002)는 정서와 정보처리와의 관계를 가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서 행동개념화이론을 들고 있다. 즉, 성공을 이룬 뒤에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전반적인 목적 개념에서 기술하는 반면, 실패에 부딪혔을 때에는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적 개념에서 기술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Vallacher, Wegner와 Frederick(1987)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긍정정서가 전반적인 정보처리를 촉진하고, 부정정서가 지엽적인 정보처리를 촉진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긍정정서는 숲을 보도록 하지만, 부정정서는 나무를 보게 한다는 이들의 연구 결과는 해석수준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상위수준과 하위수준의 기능이 정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초점수준가설이나 행동개념화이론에서는 해석수준 이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시간거리와 같은 심리적 거리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으며, 해석수준 이론 역시 행동개념화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개인차 변인에 대한 설명과 정서와의 관련성이 간과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부정적 정서의 하나로 설명되고 있는 특성불안을 해석수준 이론에 근거하여 특성불안과 해석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특성불안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상황에서 지엽적인 정보처리가 빠르고(Derryberry & Reed, 1998), 위협적인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며(Eysenck, 1997; Williams, Watts, MacLeod, & Mathews, 1997), 모호한 자극을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하고(Eysenck, 1997), 위협적인 정보의 기억과제에서 더 높은 수행을 보인다는 결과(Cloes & Heimberg, 2002)를 고려해 보면,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상위수준보다 하위수준의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해석수준 이론에서는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 때 하위수준의 해석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특성불안과 대안 선호도와와의 관계를 시간거리 지각이 조절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하위수준의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제시된 두 가지 대안 가운데 상위수준보다는 하위수준이 부정적인 대안에 대하여 시간거리를 가깝게 지각할 때 특성불안에 따른 차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특성불안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4년제 대학의 남녀 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교양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6명이 제외되어 총 12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대상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67명(51.9%), 여자 62명(48.1%)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44명(34.1%), 2학년 23명(17.8%), 3학년 30명(23.3%), 4학년 32명(24.8%)이었다. 전공별 분포는 고른 편이었으며, 설문 조사는 4일 이내에 모두 실시하여 다음 학기라는 객관적 시간거리가 동일하게 조작되도록 하였다.

### 측정도구

#### 특성불안 척도

Spielberger(1972)의 상태-특성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한덕웅, 이창호 및 탁진국(1993)이 한국어판 척도로 표준화한 것 가운데 특성불안 검사만을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20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보고한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계수는 .86이었다.

#### 시간거리 지각

시간거리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나리오에 제시된 ‘다음 학기’ 수강신청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평정하게 하였다. 시간거리 지각은 ‘매우 가까운 일이다(1)’에서 ‘매우 먼 미래

의 일이다(9)'까지 9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음 학기'라는 시간을 멀리 지각한 것이 된다.

#### 상위부정-하위긍정/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의 시나리오

지각된 시간거리 지각에 따라 대안의 선호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상위수준(수업의 내용)과 하위수준(성적평가)의 긍정/부정 속성을 교차시켜 두 가지 대안을 만들었으며 제시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상위부정-하위긍정인 대안.** 친구들과 다음 학기 수강신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공과목 가운데 딱딱하고 재미없는 수업이 있는데, 담당교수님이 성적을 잘 주기로 유명합니다.

**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 친구들과 다음 학기 수강신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흥미롭고 미래 진로와 관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수업이 있는데, 담당교수님이 깐깐하고 성적평가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 상하위수준 중요도 평가

제시된 각각의 대안에서 상위수준은 수업의 내용을, 하위수준은 성적평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위긍정인 대안의 상위수준의 속성(흥미로운 수업)과 상위부정인 대안의 상위수준의 속성(재미없는 수업)이 다음 학기 수강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9점 척도 상에서 각각 평정하도록 하고, 이 점수를 합하여 상위수준의 중요도 평가점수로 하였다. 마찬가지로 긍정적 하위수준의 속성(후한 성적평가)과 부정적 하위수준의 속성(까다로운

성적평가)의 중요도 평가 점수를 합하여 하위수준의 중요도 평가점수를 구하였다.

#### 긍정적인 사건의 발생가능성

제시된 각 대안을 선택했을 때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을 9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사건의 발생가능성(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다.

#### 대안 선택의도

각각의 대안에 대해 다음 학기 수강선택의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당신은 다음 학기에 이 강의를 신청할 마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하고 싶지 않다(1)'에서 '매우 하고 싶다(9)'까지 9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제시된 대안의 선택의도가 높은 것이다.

#### 행동개념화 척도(The Behavior Identification Form: BIF)

Vallacher와 Wegner(1989)가 개발한 행동개념화 척도(BIF)를 본 연구자가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25문항 가운데 의미가 불분명하거나(예, 유혹에 저항하기), 성별에 따른 차이를 가져올 수 있거나(예, 군대가기), 대학생에게 부적절한(예, 임대료 지불하기) 9문항은 제외하였다. 대신 Fujita, Trope 등(2006)이 실험에서 해석수준 조작 검증을 위해 사용한 문항 가운데 6문항(예, 바닥청소, 가족모임 참가, 스카이다이빙, 집에서 공부하기, 재활용, 새로운 사람 만나기)과 본 연구자 및 상담심리 전문가 2인의 협의를 거친 3문항을 더 첨가하여(예, 운동하기, 음악감상, 영화보기) 총 25문항으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5개의 다양한 행위(예,

목록만들기)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수준의 개념화(예, 할 일들을 적기)와 추상적인 수준의 개념화(예, 조직화하기)를 제시하고 그 행위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고 느끼는 진술문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추상적인 수준의 개념화를 선택한 경우 1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추상적인 수준, 즉 상위수준에서 개념화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부록 참조).

### 연구설계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수업 내용(흥미로운 수업 vs. 재미없는 수업)과 성적평가(쉬운 수업 vs. 까다로운 수업)는 피험자 내 변인으로 조작되었고, 시간거리 지각(가까운 미래 지각 vs. 먼 미래 지각)은 피험자 간 변인으로 설계되었다. 시나리오 제시순서에 따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상위부정-하위긍정인 대안과 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의 제시순서를 혼합하여 무작위로 실시하였다.

## 결 과

###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대안의 선호도 차이

시간거리 지각에 따라 상위수준(수업의 내용)과 하위수준(성적평가)의 중요도 평가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상하위수준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종속변인으로 두고 시간거리 지각(가까운 미래 지각 vs. 먼 미래 지각)에 따른 평균을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한편, 지시문에서 ‘다음 학기’로 객관적인 시간거리를 동일하게 제시해 주고, 이에 대한 시간거

표 1.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상하위수준의 중요도 평균(표준편차)

	시간거리 지각		계
	가까운 미래 (n=69)	먼 미래 (n=60)	
상위수준	13.01(2.80)	14.30(2.32)	13.61(2.66)
하위수준	14.19(3.01)	12.92(4.24)	13.60(3.68)

리 지각을 9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한 결과, 시간거리 지각의 평균이 5.22(표준편차 2.14)로 나타나 중간점 5점을 기준으로 5점 이하일 경우에는 가까운 미래지각 집단으로, 6점 이상인 경우에는 먼 미래지각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변량분석결과, 시간거리 지각과 상하위수준의 중요도 평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1,127)=7.87, p<.01$ ).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단순주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학기를 가까운 미래로 지각하는 학생은 상위수준( $M=13.01$ )보다는 하위수준( $M=14.19$ )을 더 중요하게 지각하지만( $F(1,127)=3.57, p<.06$ ), 이와 반대로 다음 학기를 먼 미래로 지각하는 학생은 하위수준( $M=12.92$ )보다는 상위수준( $M=14.30$ )을 더 중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27)=4.31, p<.05$ ). 또한, 상위수준은 가까운 미래보다 먼 미래로 지각할 때( $F(1,127)=7.89, p<.01$ ), 하위수준은 먼 미래보다 가까운 미래로 지각할 때( $F(1,127)=3.93, p<.05$ ) 더 중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부정-하위긍정인 대안과 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에 대한 선택의도가 시간거리 지각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각각의 대안에 대한 선택의

표 2.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대안 선택의도의 평균 (표준편차)

대안	시간거리 지각		계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상위부정-하위긍정	6.77(1.74)	5.80(2.52)	6.32(2.18)
상위긍정-하위부정	5.42(2.11)	6.17(2.09)	5.77(2.13)

도의 평균값을 구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변량분석결과, 시간거리 지각과 대안 선택의도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 $F(1,127)=8.74, p<.01$ ), 이 결과를 표 2의 평균표와 단순주효과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보면, 다음 학기를 가까운 미래로 지각하는 학생은 상위부정-하위긍정인 대안의 선택의도가 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의 선택의도보다 높았지만 ( $F(1,127)=11.61, p<.01$ ), 다음 학기를 먼 미래로 지각하는 학생의 경우, 두 대안간 선택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F(1,127)=.75, n.s.$ ). 이를 대안별로 살펴보면, 상위부정-하위긍정인 대안에 대한 선택의도는 다음 학기를 먼 미래로 지각하는 학생 ( $M=5.80$ )보다 가까운 미래로 지각하는 학생 ( $M=6.77$ )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 $F(1,127)=6.59, p<.01$ ), 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 즉, 흥미롭지만 성적평가가 까다로운 수업에 대해서는 가까운 미래로 지각하는 학생 ( $M=5.42$ )보다 먼 미래로 지각하는 학생 ( $M=6.17$ )에게 선택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 $F(1,127)=4.05, p<.05$ ).

특성불안에 따른 대안의 선호도 차이: 시간거리 지각의 조절효과

### 특성불안과 해석수준의 관계

특성불안이 실제 시간거리가 개입되지 않은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해석수준 이론에 입각하여 본다면 어느 수준에서의 해석이 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Vallacher와 Wegner(1987)가 개발한 행동개념화 척도를 사용하여 특성불안과 해석수준간의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특성불안과 해석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 ( $r=-.32, p<.001$ ), 특성불안이 높을수록 하위수준의 해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특성불안과 상하위수준 중요도 평가와의 관계

앞서 시간거리 지각에 따라 상하위수준의 중요도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특성불안과 해석수준간의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므로, 특성불안에 따른 상하위수준 중요도 평가가 시간거리 지각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특성불안(상/하)<sup>2</sup>과 시간거리 지각(가까운 미래 지각/ 먼 미래 지각)<sup>2</sup>에 따른 상하위수준에 대한 중요도 평가의 평균값을 구하여 표 3에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특성불안의 평균값이 54.73점(표준편차 9.81)으로 나타나 55점을 기준으로 특성불안 상하집단을 구분하였다.

표 4의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시간거리 지각, 특성불안, 상하위수준의 중요도 평가간의 삼원상호작용의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 $F(1,125)=3.71, p<.06$ ), 이는 앞서 나타난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상하위수준의 중요도 평가가 특성불안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특성불안 집단별로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상하위수준의 중요도 평가값을 비교한 결과, 특



표 3. 특성불안과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상하위수준의 중요도 평균(표준편차)

		시간거리 지각		계
		가까운 미래 지각	먼 미래 지각	
상위수준	불안 상	12.67(2.92)	14.62(2.21)	13.58(2.77)
중요도	불안 하	13.33(2.69)	14.00(2.42)	13.64(2.57)
하위수준	불안 상	15.00(2.15)	12.59(4.46)	13.87(3.61)
중요도	불안 하	13.44(3.48)	13.23(4.08)	13.34(3.74)

표 4. 특성불안과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상하위수준의 중요도 변량분석 결과 요약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피험자간				
시간거리 지각(A)	.00	1	.00	.00
불안(B)	3.03	1	3.03	.46
A*B	3.30	1	3.30	.50
오차	830.87	125	6.65	
피험자내				
상하위수준(C)	.53	1	.53	.04
A*C	110.54	1	110.54	8.43**
B*C	3.71	1	3.71	.28
A*B*C	48.58	1	48.58	3.71*
오차	1638.64	125	13.11	

\*  $p < .06$ , \*\*  $p < .01$ , \*\*\*  $p < .001$

성불안이 높은 집단에서는 시간거리를 가깝게 지각할 때, 상위수준( $M=12.67$ )보다는 하위수준( $M=15.00$ )을 더 중요하게 지각하는 반면( $F(1,125)=6.85, p < .01$ ), 시간거리를 멀리 지각할 때는 하위수준( $M=12.59$ )보다는 상위수준( $M=14.62$ )을 더 중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25)=4.58, p < .05$ ). 또한, 상하위수준의 중요도 평가가 시간거리 지각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단순주효과 분석결

과 다음 학기를 가까운 미래보다 먼 미래로 지각할 때 상위수준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125)=8.87, p < .01$ ), 하위수준은 다음 학기를 먼 미래로 지각하기보다 가까운 미래로 지각할 때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25)=7.12, p < .01$ ). 그러나 특성불안이 낮은 집단에서는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상하위수준의 중요도 평가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가까운 미래  $F(1,125)=$

.02, *n.s.*/ 먼미래  $F(1,125)=.71, n.s.$ ). 이러한 결과는 시간거리를 가깝게 지각할수록 하위수준의 중요도는 증가하고, 시간거리를 멀리 지각할수록 상위수준의 중요도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성불안이 높을 때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상하위수준의 중요도 평가에 있어서 시간거리 지각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하위수준의 경우 가까운 미래로 지각할 때 특성불안에 따른 차이가 1.56으로 나타나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특성불안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시간거리를 가깝게 지각할수록 하위수준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67)=4.87, p<.01$ ).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특성불안과 긍정적 사건의 발생가능성 예측과의 관계**

각 대안을 선택했을 때 긍정적인 사건의 발생가능성(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특성불안과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특성불안(2)과 시간거리 지각(2)에 따른 긍정적 사건의 발생가능성의 평균값을 구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변량분석결과, 불안과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는데( $F(1,125)=5.21,$

표 5. 특성불안과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긍정적 사건의 발생가능성 예측(표준편차)

	시간거리 지각		계
	가까운 미래 지각	먼 미래 지각	
불안 상	13.09(2.01)	13.76(2.21)	13.40(2.12)
불안 하	14.83(1.58)	13.87(2.29)	14.39(1.98)

$p<.05$ ), 이는 시간거리를 멀리 느낄 때는 특성불안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시간거리를 가깝게 느낄 때는 두 집단간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차이를 표 5의 평균표와 단순주효과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다음 학기를 가까운 미래로 지각할 때에는 긍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특성불안에 따른 차이가 1.74로 나타난 반면( $F(1,126)=12.98, p<.001$ ), 먼 미래로 지각할 경우에는 0.11로 특성불안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F(1,126)=.04, n.s.$ ). 또한, 특성불안이 높은 집단에서는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긍정적 사건의 발생가능성 예측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F(1,126)=1.93, n.s.$ ), 특성불안이 낮은 집단에서는 시간거리를 가깝게 지각할 때 긍정적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더 높게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26)=4.14, p<.05$ ). 한편 긍정적 사건의 발생가능성 예측에 대한 불안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는데( $F(1,126)=6.75, p<.05$ ), 이는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낮게 예측하는 것(불안상  $M=13.40$ , 불안하  $M=14.39$ )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특성불안과 대안 선택의도와의 관계**

특성불안과 각 대안의 선택의도와의 관계가 시간거리 지각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부정-하위긍정인 대안의 선택의도는 시간거리 지각과 관계없이 특성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가까운 미래  $r=.19, n.s.$ ; 먼 미래  $r=.12, n.s.$ ), 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의 선택의도는 다음 학기를 가깝게 지각하는 경우, 특성불안과 통계적으로 유

표 6. 특성불안과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 선택의도 평균(표준편차)

	시간거리 지각		계
	가까운 미래 지각	먼 미래 지각	
불안 상	4.82(1.83)	6.34(2.13)	5.53(2.10)
불안 하	5.97(2.22)	6.00(2.08)	5.99(2.14)

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r=-.34, p<.01$ ).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특성불안(2)과 시간거리 지각(2)에 따른 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 선택의도의 평균값을 구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변량분석결과, 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 선택의도에 대한 특성불안과 시간거리 지각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F(1,126)=4.19, p<.05$ ), 이 결과를 표 6의 평균표와 단순주효과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다음 학기를 가까운 미래로 지각할 때는 특성불안에 따른 대안 선택의도의 차이가 1.15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F(1,126)=4.92, p<.05$ ), 시간거리를 멀리 지각할 때는 특성불안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F(1,126)=.34, n.s$ ). 이러한 결과는 시간거리를 가깝게 지각할수록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에 대해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성불안이 높은 집단에서는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F(1,126)=8.69, p<.01$ ), 특성불안이 낮은 집단에서는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126)=.00, n.s$ ). 이와 같은 결과는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시간거리를 멀리 지각할 때보다 가깝게 지각할 때, 상위

긍정-하위부정인 대안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논 의

해석수준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상과 사건을 심리적 거리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고 한다(Trope & Liberman, 2003). 본 연구는 해석수준 이론을 근거로 크게 두 가지 목적 하에서 수행되었다. 우선 그 하나는 다양한 심리적 거리 가운데 해석수준 이론의 시발점이 되었던 시간적 거리에 대해 주관적인 시간거리 지각을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즉 동일한 시간거리에 대해서도 이를 가깝게 지각하는 이가 있는 반면, 멀리 지각하는 이도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하고 개인에 따른 주관적인 시간거리 지각이 해석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다른 하나는 특성불안의 인지적 측면을 해석수준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즉 정서가 개인의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의 보고(Basso et al., 1996; Derryberry & Reed, 1998; Gasper & Clore, 2002)를 바탕으로 특성불안이 해석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들간의 관계를 시간거리 지각이 조절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수준(수업의 내용)과 하위수준(성적평가)의 중요도 평가가 시간거리 지각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시간거리 지각과 상하위수준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거리를 멀리 지각할수록 상위수준이 중요하게 지각되는 반면, 시간거리를 가깝게 지각할수록 하위수준이 중요하게

지각된다는 것이다. 이는 시간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바람직성(desirability)의 중요도는 증가하지만 실행가능성(feasibility)의 중요도는 감소된다고 밝힌 Liberman과 Trope(1998)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대안의 선택의도가 시간거리 지각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시간거리 지각과 대안의 선택의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상위부정-하위긍정인 대안의 선택의도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먼 미래로 지각할 때보다 가까운 미래로 지각할 때 높았던 반면, 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은 다음 학기를 가까운 미래로 지각할 때보다 먼 미래로 지각할 때 선택의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긍정적인 상위수준의 속성을 지닌 대안의 선호도는 먼 미래 조건일 때 더 높아지며, 긍정적인 하위수준의 속성을 지닌 대안은 이와 반대로 가까운 미래 조건에서 선호도가 증가된다는 해석수준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Liberman & Trope, 1998; Trope & Liberman, 2000).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인 시간거리 지각이 객관적인 시간처치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결과는 그동안 해석수준 이론에서 간과되어 온 시간거리 지각의 개인차를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동일한 시간거리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지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주관적인 시간거리 지각이 지금까지 실험처치로 조작해 온 시간적 거리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해석수준 이론을 한 단계 더 확장 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긍정정서는 자극의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모습에 기초한 정보처리를 하게 하지만,

부정정서는 지엽적인 모습에 기초한 정보처리를 하게 한다는 선행연구(Clore & Gasper, 2001; Gasper & Clore, 2002)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성불안과 시간거리가 개입되지 않은 평소 자연스런 일상생활에서의 해석수준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특성불안과 해석수준 간에 부적상관이 유의하여, 특성불안이 높을수록 하위수준의 해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특성불안과 해석수준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으나, 본 연구결과는 시각지각영역에서 부정정서가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정보처리와 부적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Basso et al., 1996; Gasper & Clore, 2002; Isen & Daubman, 1984)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서가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해석수준 이론을 접목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이다. 즉 지금까지는 주로 시각지각영역에서 부정정서가 지엽적인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었지만, 본 연구는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개념화수준을 측정하여 특성불안이 높을수록 하위수준의 해석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처럼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시간거리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위수준의 해석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특성불안이 각 대안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거리 지각이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수준과 하위수준의 중요도 평가가 특성불안과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상하위수준, 특성불안과 시간거리 지각 간에 삼원상호작용의 경향성( $p < .06$ )이 나타났다. 단순

주효과 분석을 통해 상하위수준의 중요도 평가가 시간거리 지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경향이 특성불안이 높은 집단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특성불안이 낮은 집단에서는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상위수준은 가까운 미래보다 먼 미래로 지각될 때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하위수준은 먼 미래보다 가까운 미래로 지각될 때 더 중요한 요인으로 지각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성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하위수준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시간거리를 가깝게 지각할 때 특성불안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결정의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지각하게 되면 특성불안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하위수준의 정보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시된 상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 즉 긍정적 사건의 발생가능성 예측에서 특성불안에 따른 주효과 뿐 아니라 시간거리 지각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났다. 이는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낮게 예측하며, 특히 시간거리를 가깝게 지각할 때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사건의 발생가능성 예측에 대한 특성불안의 주효과는 불안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건에 대한 가능성은 낮게 추정하고, 위협적인 사건에 대한 위협은 높게 평정한다고 밝힌 Butler와 Mathews(1983, 1987)의 연구와 우울을 통제하더라도 특성불안과 부정적인 사건의 발생가능성 추정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밝힌 Stöber(199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각 대안의 수강선택의도에 대하여 특성불안의 정도에 따른 시간거리 지각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상위부정-하위긍정인 대안에 대해서는 시간거리 지각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를 가까운 시간거리로 지각할 때 특성불안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난 반면, 먼 시간거리로 지각한 경우 특성불안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시간거리를 가깝게 지각할 때 특히 하위수준이 부정적인 대안에 대해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위험회피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Maner, Richey, Cromer, Mallott, Lejuez, Joiner, & Schmidt, 2007; Maner & Schmidt, 2006; Raghunathan & Pham, 1999),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 역시 위험을 유발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즉, 흥미로운 수업이지만 성적평가가 까다로운 수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낮은 성적을 받을 확률이 크다는 위협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의사결정 시점이 가깝다고 지각될 때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회피경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상위부정-하위긍정인 대안에 대해서는 시간거리 지각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제시된 대안이 위협을 유발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하위수준의 중요도 평가와 긍정적 사건의 발생가능성 예측에 대한 앞선 결과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즉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시간거리를 가깝게 지각할수록 상위

수준인 수업의 내용보다는 성적평가라는 하위 수준의 정보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을 더 낮게 예측하기 때문에 특성불안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흥미롭지만 성적평가가 까다로운 수업에 대한 수강선택의도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임상 및 상담현장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불안장애 치료에서 Beck, Emery와 Greenberg(1985)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불안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황을 근시안적인 관점(worm's eye view)으로 본다. 따라서 불안한 사람들에게 좀 더 넓은 관점, 즉 상황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bird's eye view)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기능이 된다(pp.206).

이러한 견해는 불안한 사람들이 특정 상황의 구체적인 경험에 얽매어 있는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남으로써 문제를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보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하위수준의 해석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이들의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특성불안과 위험회피 의사결정과의 관계에서 시간거리 지각의 조절효과는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 시간거리를 가깝게 지각할 때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성불안을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특질로 본다면, 특성불안의 효과를 조절해 주는 변인을 찾음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를 약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

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밝힌 시간거리 지각의 유용성은 불안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부적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성불안이 높은 내담자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이 예견될 때 쉽게 불안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성불안이 높더라도 시간거리 지각이 멀어지면 특성불안이 낮은 집단과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성불안이 높은 내담자의 경우,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들의 시간거리 지각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시간거리보다 더 압박한 것으로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게 하며, 스스로 문제 상황으로부터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다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특성불안이 높은 내담자들이 근시안적인 관점(worm's eye view)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bird's eye view)을 취할 수 있는 중요한 가지 방법이 되며, 그들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상위긍정-하위부정인 대안과 상위부정-하위긍정인 대안으로 피험자인 대학생이 공감하기 쉬운 수강신청 상황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는데, 좀 더 다양한 상황을 통해 이같은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시간거리 지각을 개인차 변인으로 다루었으나, 이러한 시간거리 지각 경향이 여러 상황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인지의 여부는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음 학기라는 객관적으로 동일

한 시간을 어떤 이는 가깝게 지각하고, 또 어떤 이는 멀리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주관적인 시간거리 지각이라는 개인차가 다른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생 피험자를 대상으로 특성불안 상하집단을 구분하였으므로, 특성불안이 높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병리적인 수준의 특성불안을 지닌 집단과는 그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음 학기라는 동일한 시간을 제시해 주었는데, 시간거리 지각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이처럼 객관적인 거리가 아닌 시간거리 지각의 차이로 인해 예측이나 선호도가 달라짐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동일한 시간거리를 개인에 따라 왜 다르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즉 시간거리 지각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한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인차 요인으로 대표적인 부정정서 가운데 하나인 특성불안을 상정하여 살펴보았는데, 정서와 정보처리 이론에 따르면 긍정정서는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 추후 연구에서는 긍정정서와 관련된 성격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해석수준이론을 더 정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특성불안이 높더라도 시간거리를 멀리 지각하게 되면 특성불안이 낮은 집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실제 특성불안이 높은 내담자를 대

상으로 시간거리를 멀리 지각하도록 처치하였을 때 이러한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해석수준이론에 근거한 여러 연구에서 심리적 거리를 조작하는 방식을 통해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심리적 거리를 조작해 보고, 이러한 처치가 효과적임이 밝혀진다면 이는 상담 장면에서 특성불안이 높은 내담자를 돕는데 중요한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해석수준이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영학이나 마케팅 영역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고 있으나(김성은, 2009; 김영조, 2006; 윤지현, 2007; 정환호, 2008),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자마다 해석수준이론(김성은, 2009; 윤지현, 2007) 혹은 추론수준이론(김영조, 2006; 정환호, 2008) 등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은 (2009). 해석수준, 인지욕구 및 시간적 거리에 따른 소비자의 정보탐색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조 (2006). 시간적 거리에 의한 소비자 정보처리가 제품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지현 (2007). 불확실성과 시간적 거리가 대안의 해석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환호 (2008). 추론수준 프레임 광고형태와 시

- 간거리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 (1993).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학생지도연구*, 10, 214-222.
- Basso, M. R., Schefft, B. K., Ris, M. D., & Dember, W. M. (1996). Mood and global-local visual processing.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uro Psychological Society*, 2, 249-255.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utler, G., & Mathews, A. (1983). Cognitive process in anxiety. *Advances in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5, 51-62.
- Butler, G., & Mathews, A. (1987). Anticipatory anxiety and risk percep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551-565.
- Clore, G. L., & Gasper, K. (2001). Feeling is believing: Some affective influences on belief. In N. Frijda, T. Manstead, & S. Bem (Eds.), *Emotions and Beliefs* (pp.10-4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ore, G. L., Gasper, K., & Garvin, E. (2001). Affect-as-information. In J. P. Forgas (Ed.), *Handbook of Affect and Social Cognition* (pp.121-144). Mahwah, NJ: Erlbaum.
- Coles, M. E., & Heimberg, R. G. (2002). Memory biases in the anxiety disorders: current statu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587-627.
- Clore, G. L., Wyer, R. S., Dienes, B., Gasper, K., Gohm, C., & Isbell, L. (2001). Affective feelings as feedback: Some cognitive consequences. In L. L. Martin & G. L. Clore (Eds.), *Theories of Mood and Cognition: A User's Guide* (pp.27-62). Mahwah, NJ: Erlbaum.
- Derryberry, D., & Reed, M. A. (1998). Anxiety and attentional focusing: trait, state and hemispheric influen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745-761.
- Derryberry, D., & Tucker, D. M. (1994). Motivating the focusing of attention. In P. Niedenthal & S. Kitayama (Eds.), *The Heart's Eye: Emotional Influences in Perception and Attention* (pp.167-192). New York: Academic.
- Eyal, T., Sagristano, M. D., Trope, Y., Liberman, N., & Chaiken, S. (2009). When values matter: Expressing values in behavioral intentions for the near vs. distant futur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 35-43.
- Eysenck, M. W. (1997). *Anxiety and Cognition: A Unified Theory*. Hove: Erlbaum.
- Fujita, K., Henderson, M., Eng, J., Trope, Y., & Liberman, N. (2006). Spatial distance and mental construal of social events. *Psychological Science*, 17, 278-282.
- Fujita, K., Trope, Y., Liberman, N., & Levin-Sagi, M. (2006). Construal levels and self-control. *Journal fo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351-367.
- Gasper, K., & Clore, G. L. (2002). Mood and global versus local processing of visual information. *Psychological Science*, 13, 34-40.
- Henderson, M., Fujita, K., Trope, Y., & Liberman, N. (2006). Transcending the "Here": The effect of spatial distance on social judgment. *Journal fo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845-856.



- Isen, A. M., & Daubman, K. A. (1984). The influence of affect on 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206-1217.
- Kim, H., & John, D. R. (2008). Consumer response to brand extensions: Construal level as a moderator of the importance of perceived fit.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8, 116-126.
- Liberman, N., & Trope, Y. (1998). The role of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considerations in near and distant future decisions: A test of temporal construal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5-18.
- Maner, J. K., Richey, J. A., Cromer, K., Mallott M., Lejuez, C. W., Joiner, T. E., & Schmidt, N. B. (2007). Dispositional anxiety and risk-avoidant decision-mak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665-675.
- Maner, J. K., & Schmidt, N. B. (2006). The role of risk avoidance in anxiety. *Behaviour Therapy*, 37, 181-189.
- Nussbaum, S., Trope, Y., & Liberman, N. (2003). Creeping dispositionism: The temporal dynamics of behavior predi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485-497.
- Raghunathan, R., & Pham, M. T. (1999). All negative moods are not equal: Motivational influences of anxiety and sadness on decision-m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79, 56-77.
- Sagristano, M. D., Trope, Y., & Liberman, N. (2002). Time dependent gambling: Odds now, money later.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1, 364-376.
- Spielberger, C. D. (1972).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In C. D. Spielberger(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Stöber, J. (1997). Trait anxiety and pessimistic appraisal of risk and ch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 465-476.
- Todorov, A., Goren, A., & Trope, Y. (2007). Probability as a psychological distance: Construal and prefer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 473-482.
- Trope, Y., & Liberman, N. (2000). Temporal construal and time-dependent changes in pre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876-889.
- Trope, Y., & Liberman, N. (2003). Temporal construal. *Psychological Review*, 110, 403-421.
- Vallacher, R. R., & Wegner, D. M. (1985). *A Theory of Action Identification*. Hillsdale, NJ: Erlbaum.
- Vallacher, R. R., & Wegner, D. M. (1987). What do people think they're doing? Action identification and human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94, 3-15.
- Vallacher, R. R., & Wegner, D. M. (1989). Levels of personal agency: Individual variation action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60-671.
- Vallacher, R. R., Wegner, D. M., & Frederick, J. (1987). The presentation of self through action identification. *Social Cognition*, 5, 301-322.
- Wakslak, C. J., Trope, Y., Liberman, N., & Alony, R. (2006). Seeing the forest when entry is unlikely: Probability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eve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5, 641-653.

Williams, J. M. G., Watts, F. N., MacLeod, C.,  
Mathews, A. (1997). *Cognitive Psychology and  
Emotional Disorders*(2nd ed.), Chichester: Wiley.

1차원고접수 : 2010. 07. 10.

수정원고접수 : 2010. 09. 12.

최종게재결정 : 2010. 10. 15.

## **Effects of Trait Anxiety and Perceived Temporal Distance on Preference: Based on Construal Level Theory**

**Kyung Wook Kim**

Hanyang Counseling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perceived temporal distance on preference based on construal level theory (CLT). This study also intend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t anxiety and construal level, and perceived temporal distance has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t anxiety and preference of the option.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next semester' as a criteria to measure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ceiving temporal distan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Participants perceiving next semester as near future evaluated low-level related information as more important than high-level related information, in contrast, participants who perceived next semester as distant future considered high-level related information as more important. Further, they prefer the option that has negative high-level feature and positive low-level feature when they perceived next semester as near future. Trait anxiety correlated with construal level negatively. Those with higher trait anxiety evaluated low-level related information as more important, predicted the possibility of positive event as lower when they perceived next semester as near future. Especially it can be suggested that perceived temporal distance was an important factor in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t anxiety and the threatening opt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construal level theory, perceived temporal distance, trait anxiety, preference of the option.*

부록. 행동개념화 척도(The Behavior Identification Form: BIF)

◆ 아래 제시된 각 상황에 대해 각각 2개의 진술문이 짝지어져 있습니다. 2개의 진술문 가운데 **주어진 상황을 더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를 골라 ( )안에 V표 해 주십시오. 정답은 없으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되도록 빨리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황					
1	목록만들기	① 조직화하기	( )	② 할 일들을 적기	( )
2	독서	① 글읽기	( )	② 지식얻기	( )
3	빨래	① 옷을 세탁기에 넣기	( )	② 옷 깨끗이 하기	( )
4	거실에 카펫깔기	① 리모델링 준비하기	( )	② 거실 치수재기	( )
5	집안청소	① 진공청소기로 먼지 없애기	( )	② 깨끗하게 하기	( )
6	방도배하기	① 방 분위기 바꾸기	( )	② 벽에 풀칠하여 벽지붙이기	( )
7	집에서 화초가꾸기	① 집을 더 멋지게 꾸미기	( )	② 화초에 물주기	( )
8	문잠그기	① 열쇠구멍에 열쇠꽂기	( )	② 집을 안전하게 하기	( )
9	투표	① 선거권 행사하기	( )	② 투표용지에 도장찍기	( )
10	심리검사받기	① 검사문항에 답하기	( )	② 자기자신에 대해 알아보기	( )
11	양치질하기	① 충치예방하기	( )	② 구석구석 잘 닦기	( )
12	시험	① 실력점검하기	( )	② 문제풀기	( )
13	운동하기	① 계단오르내리기	( )	② 건강유지하기	( )
14	음악감상	① 정서적 안정 취하기	( )	② CD 틀기	( )
15	식사	① 씹고 삼키기	( )	② 영양분 섭취하기	( )
16	차로 여행하기	① 관광하기	( )	② 지도보고 찾아가기	( )
17	충치치료	① 치과가기	( )	② 건강한 치아 유지하기	( )
18	초인종 누르기	① 집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	( )	② 손가락으로 벨 누르기	( )
19	바닥청소	① 빗자루로 쓸기	( )	② 깨끗이 하기	( )
20	가족모임 참가	① 가족간 우애다지기	( )	② 소풍가기	( )
21	스카이다이빙	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	( )	② 용기를 보여주기	( )
22	집에서 공부하기	① 자기수양에 힘쓰기	( )	② 노트보고 복습하기	( )
23	재활용	① 종이, 유리, 캔으로 분리하기	( )	② 환경을 보호하기	( )
24	새로운 사람 만나기	① 약속하고 간단한 인사나누기	( )	② 사회적 관계망(인맥) 넓히기	( )
25	영화보기	① 문화생활하기	( )	② 영화관 가기	( )